

《素問》 「陰陽離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研究

慶熙大學校 朴 贊國·大田大學校 崔 三燮

1. 序論

《內經·素問》의 「陰陽離合論」은 《內經》의 어느 篇보다 經絡의 生成意味를 잘 表現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內容을 理解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이러한 經絡 理解의 未備는 나아가 醫學研究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著者は 이러한 點을 안타깝게 여긴지 오래됐으나, 이의 基本 바탕이 되는 數의 意味가 풀리지 않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웠던 차에, 최근 약간의 새로운 생각을 얻은 것 같아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發表하는 바이다.

먼저 「陰陽離合論」의 太衝과 廣明의 意味를 밝히고, 三陰三陽의 意味와 開闔樞의 六의 意味를 밝히기 위하여 數를 가지고 그 原理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陰陽五行을 融合하여 三陰三陽이 經絡에 合할 수 있는 根據를 探索하였다.

2. 太衝과 廣明

《素問》 「陰陽離合論」에서 사람의 前을 廣明이라하고 後를 太衝¹⁾이라 하였는데 明確한 注釋이 없었다. 따라서 三陰三陽經絡의 意味를 解釋하기 어려웠고, 開闔樞 理解도 쉽지 않았다.

그러면 먼저 太衝을 살펴보기로 하자. 太라는 것은 어느 一定한 個體에서 가장 크고 一無二하다는 뜻이고, 衝은 交叉路의 뜻이므로 太衝이란 人體에서 가장 큰 一無二의 交叉路란 뜻이다. 交叉路라면 理解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를 쉽게 꽃자루라 하면 理解하기 쉬울 것이다. 즉 人體의 原點이 되는 곳이 太衝이라는 뜻이다. 이와 反對로 廣明은 넓고 밝다는 뜻인데, 前曰廣明이라 하였으니, 앞은 퍼 있으며 넓고 밝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人體가 앞은 퍼서 넓고 밝으며, 뒤는 오므려 모인다는 뜻이다. 즉 꽃봉우리를 보면 꽃자루는 꽃자루에 모두 붙어 있고 꽃잎은 떨어져 있듯이 사람도 뒤는 붙어 있고 앞은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아기가 배속에 있을 때는 머리와 四肢를 모두 오무리고 있다가 태어난 後에는 팔다리를 펴는 것과 같이 사람도 꽃이 피듯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은 벌어져 넓고 밝으며, 뒤는 原點으로 모이고 오므리게 된다.

또 한가지 例로 콩이 자라는 것을 보면, 원래 콩이었던 부분은 벌어져서 잎이 되고, 씨눈이 있는 곳에서 새눈이 나오며 밑으로는 뿌리가 든다. 앞은 자라서 넓은 空間을 이루고 이 곳으로부터 햇빛을 받아 炭素 同化作用을 하고 呼吸도 한다. 또 뿌리는 땅속으로 들어가 물과 營養을 吸收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팔다리는 벌어져서 植物의 줄기 및 잎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廣明이라 하였고, 팔다리에 흐르는 經絡은 一定한 交叉路 같은 곳을 지나서 經絡이 뿌리박고 있는 臟腑로 들어가므로, 이곳을 太衝이라고 하였다.

衛氣의 運行에서 衛氣가 足少陰을 거쳐서 太陽으로 나가고, 또 陽分에서 足少陰을 거쳐 五臟으로 들어간다. ²⁾이는 곧 「陰陽離合論」에서 “太衝之地 名曰少陰”이라는

1)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2) 《靈樞·邪客 第七十一》에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常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臟六腑”, 《靈樞·衛氣行第七十六》에 “是故平旦陰盡 陽氣出

말과 相通한다고 볼 수 있다. 즉 足少陰은 곧 衛氣가 太陽, 少陽, 陽明으로 나가는 곳
입과 同時에 肝, 心, 脾, 肺, 腎으로 들어가는 通路가 되기 때문에 交叉路같다는 것이
다.

그러나 「陰陽離合論」에서는 五臟을 論外로 하고 經絡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으므로,
太衝에서 內로 하는 五臟六腑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고있다.

3. 數의 原理에 對한 考察

처음에 數란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哲學에서 왜 數를 使用하며, 또 그 數의 意味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數란 象에 相對되는 概念인데, 이 象이란 單純한 느낌으로 아직 事物이 認識
되지 않은 狀態이다. 그러므로 아직 數의 概念이 들어 올 수 없다. 數의 基本은 一인
데, 이 '一'이란 어떤 個體를 認識한 後에 생기는 概念이다. 즉 어린아이가 과자를 한
개 먹는다면, 이 과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맛이 어떻다라는 느낌은 있다.
그러나 이 과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먹으면 배가 부르다던지 하는 具體的인 認
識은 아직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는 과자에 對한 象만 있을 뿐이지, 數
의 概念은 있을 수 없다. 과자를 좀 더 認識하면 하나보다 둘이 많고, 셋보다 넷이 많
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비록 과자를 數로 셀 수 있는 能力을 갖추었다 할지라
도, 좀 더 나아가 장난감이나 動物 植物 등이 數로 表現될 수 있다는 것을 理解하는
데는 많은 時間이 소요되며, 더 나아가 물이나 돌, 나무 등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수
로 表示될 수 있다는 것을 理解하는데는 더욱 많은 時間이 必要하다.

사람이 認識이 넓어지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나아가 動物
도 그 生成 變化의 根本原理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점점 나아가 온 宇宙가 하나
의 原理로 生成變化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이 宇宙를 단지 '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事物의 生成變化를 하나의 理致안에서 表現할 수 있게 된다.

1) 하나와 둘의 原始世界

東洋哲學에서 말하는 '一'이란 數는 普通 加減乘除할 때의 基本 數인 '一'과는 概念
이 다르다. 加減乘除에서는 '一'이 單位가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數이지만, 東洋哲學
에서는 '一'에서 모든 것이 生成變化 하므로 오히려 가장 큰 數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事物을 하나라고 認識하는 것은, 狀況에 따라 그 하나의 事物이 完全
한 것으로 認識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배를 열개 산다고 하자. 이 때 열개를 한 꾸
러미로 하여 하나로 認識할 수 있지만, 이 열개를 構成하는 하나 하나가 完全한 배라
고 認識되지 않으면 '十'을 構成할 수 없는 것이다. 즉 地球上에 數十億의 人類가 살
고 있지만, 그 數十億을 構成하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完全한 人間으로 認識
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數十億을 構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람을 差別하여 어
떤 사람은 두사람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半사람으로 치고 하면, 人口가 數十億이라는
認識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라고 認識된 數는 完全한 것이므로, 그 어느
數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個體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段階를 넘
어, '十'을 하나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種, 類, 系 등을 하나로 보며, 終局에 宇宙萬物
을 하나로 보는 段階에 이르게 되면, 모든 萬物이 모두 하나에서 生成되고, 단 하나의

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 ……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 下行陰分 復
合於目"이라 하고 있다. 또 <營衛生會 靈樞第十八>에 "衛出於下焦"라 하였는데, 章虛
谷은 그의 《醫門棒喝》에서 "營氣出于中焦 衛氣出于下焦 而先天元陽之氣發于命門 即
腎臟坎象中之一陽 此先天 後天 以生 以化之源流也"라 하고 있다. 이를 綜合하여 살펴
보면, 衛氣는 足少陰을 따라 出入하며 그 根源은 下焦에 있는데, 밖으로 나올 때는
下焦에 뿌리를 두고 足少陰을 따라 上行하여, 눈에서 足太陽을 始發로 하여 陽分을
行하게 된다. 안으로 들어갈 때도 역시 足少陰을 通하여 陰分으로 行하게 된다.

(素問) 「陰陽離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研究

原理에 의하여 變化됨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세계에서 너와 나의 區別이 없고, 對立과 矛盾이 없이 統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意識은 어느 段階에 이르면 彼我的 區別을 하게 된다. 바로 이때에 統一되어 있던 세계는, 저 客觀의 陰陽世界와 나의 主觀世界로 나누어 진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主觀世界가 먼저 오지 않고 저 物의 客觀世界가 먼저 오는 것은, 하나의 세계가 主觀의 세계로 統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我的 意識이 생기게 되면,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或者는 우리의 意識의 變化는 現世界에 있는 狀況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인데, 어떻게 이 것이 萬物의 生成을 說明하겠는가?' 라고 疑問할 것이다. 그러나 物의 生成이 原來 마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의 意識이 하나로 보면 하나가 있고, 둘로 보면 둘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現世界도 意識에 따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둘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우리 意識이 客觀世界를 認識하였을 때, 비로소 둘의 陰陽世界가 成立한다. 이 客觀世界의 變化도 이 變化를 推動하는 能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能이 鬼神이요, 그 들어난 現狀이 陰陽인 것이다. 3)그러면 이 鬼神은 어찌하여 생기는가? 어떤 마음이 있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것이 神이요 動이요 陽이며, 그것을 그치고자 하는 것이 鬼요 靜이요 陰이다.

이 하나와 둘은 셋이나 넷, 다섯이나 여섯에 比較하면 分化發達 以前の 原始世界를 말한다. 그러므로 아직 一과 二에서는 老少가 없고 生死도 없다. 즉 아직은 理만 있고 氣가 없는 것이다.

2) 셋과 넷의 分化 發達世界의 內面

太極圖說에서 “無極의 眞과 二五의 精이 妙合而應하여 乾道成男하고 坤道成女하여 二氣交感하여 化生萬物하나 萬物이 生生而變化無窮焉이니라”⁴⁾고 하였는데, 여기서 無極의 眞은 하나요, 二五의 精은 둘이요, 妙合而應 以下는 셋을 말한다. 즉 쉽게 말하면 셋이란 바로 새 生命을 만들어 내는 일을 말한다. 일단 새 生命이 誕生하면 가만히 停滯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分化와 發達을 하게 된다. 즉 둘에서의 陰陽은 相互對立的인 面에서 觀察되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일단 새 生命이 誕生하면 生老病死를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陰陽은 單純한 陰과 陽으로 存在할 수 없고, 陰은 少陰과 太陰으로, 陽은 少陽과 太陽으로 나누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와 둘이 아직 生命이 태어나기 以前の 原始世界라 한다면, 셋과 넷은 이미 生命이 태어나 分化와 發達을 始作한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 發達을 完遂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分化 發達의 內面世界로 보아야 한다. 즉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先天之精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臟腑와 經絡에 太少陰陽의 能 이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 臟腑와 經絡이 그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려면 많은 後天的인 生長이 必要하다. 그러면 이러한 分化 發達이 다섯 여섯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3) 다섯과 여섯에서 이루어지는 分化 發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셋과 넷에서 生命이 分化 發達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추어졌다. 이제 그 分化와 發達을 完成하면 한 獨立的인 生命으로 存在를 갖게 된다. 世

3) 《中庸 第十六章》에 “子 曰 鬼神之爲德이 其盛矣乎 曰 然”라 하고, 그 注에 이르기를 “程子曰 鬼神은 天地之功用而造化之迹也라, 張子曰 鬼神者 二氣之良能也라. 愚謂以二氣言則 鬼者 陰之靈也 神者 陽之靈也, 以一氣言則 至而伸者 爲神 反而鬼者 爲鬼, 其實 一物而已니라”하고 있다.

4) 周惇頤, 《古文眞寶 後集 卷之十 太極圖說》 P. 185

상의 모든 일이 반드시 그 일을 주하는 바가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셋에서 비록 生命이 誕生하였지만 아직 自主意識이 없고, 넷이 비록 生老病死를 할 수 있다지만 單純한 外的 要因에 따른 變化에 不過하다.

다섯에서 비로소 自我가 形成됨으로 單純한 陰陽太少가 하나 즉 土를 中心으로 統一되어 完全한 自身の 獨立世界를 形成하게 된다. 어떤 意味에서는 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眞正한 主觀의 世界가 形成되는 것이다. 앞에서 하나는 主觀의 世界이고, 둘은 客觀의 世界라고 한 것은 하나와 둘을 相對的으로 본 것이고, 自我의 形成以後에서 본다면 다섯의 世界가 비로소 眞正한 主觀의 世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섯은 다시 하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넷까지의 分化의 世界에서 다시 統一의 世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섯에서 統一이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統一은 다시 分化와 發達을 겪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섯은 다시 여섯 일곱으로 分化 發達을 거듭한다. 그렇지만 여섯이 넷과 다른 것은 여섯은 이미 다섯에서 自我가 形成된 後의 變化이기 때문에, 넷에서 天과 地에 맡겨진 陰陽의 太少分化가 아니고 人의 役活이 들어간 三陰三陽의 分化가 이루어진다. 즉 陰陽太少의 四象은 客觀世界이기 때문에 天地의 陰陽이고, 三陰三陽은 自我形成以後의 陰陽變化이므로 人의 陰陽으로 把握되어야 하는 것이다.

4. 五行과 三陰三陽

우리가 理氣니 道니 陰陽이니 五行이니 하는 것은, 事實 하나의 實質을 보다 理解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동원된 用語들이다. 그러나 그 說明하려는 對象은 비록 하나이지만 각 用語가 갖는 意味는 전혀 다르다.

五行이라는 것이 陰陽과 다른 것은, 陰陽은 나의 눈에 客觀的으로 觀察되어진 現象을 說明한 것이지만, 五行은 我를 中心으로 하여 내가 主觀的으로 觀察한 世界이다. 그러므로 같은 것을 觀察한다 할지라도 陰陽과 五行은 相當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正四角形의 房이 하나 있는데, 그 房의 네面이 東西南北의 正方向을 向하고 있다면, 누가 보아도(밖에서 본다면) 그 방의 네面은 언제나 東西南北의 正方向을 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를 中心으로 본다면, 내가 그 房의 東쪽에서 보면 東쪽을 面하고 있는 面이 도리어 西쪽에 있을 수 있고, 南쪽을 面하고 있는 面도 西쪽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客觀的인 觀察과 主觀的인 觀察은 엄청난 差異를 보이고 있다. 흔히 우리는 客觀的인 것만이 眞理이고 主觀的인 것은 眞理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방의 壁이 어느 쪽을 向하고 있는지는 客觀的인 觀察에 의해서만 可能한 일이지, 主觀的인 觀察로는 그저 觀察되어지는 것에 불과하지 言語로 表現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면 主觀的인 觀察은 별 意味가 없다. 그러나 實際 사람이 事物을 觀察하고 느끼고 생각하여 行動으로 옮김에 있어, 客觀的인 觀察로만 根據를 삼고 있는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主觀을 버리고 客觀을 取함을 至極히 한다면 主觀的인 利他主義나 兼愛說, 虛無主義에 빠지기 쉽고, 主觀만 至極히 내세우면 利己主義나 快樂主義에 빠지기 쉽다.

五行이란 바로 이 客觀의 陰陽世界에 主觀인 我 즉 土를 집어넣어 客觀을 融合하여 하나의 獨立된 世界를 創造한 것이다. 즉 天과 地에 對하여 人을 세움으로써 '天' '地' '인' 三才를 이루게 된다. 이는 五行이 우리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可能한 것이다.

그러면 여섯의 三陰三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四象은 아직 五行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客觀的 世界에 不過하고, 三陰三陽은 五行이 自我를 完成한 以後에 五行을 四象에 統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天地에 人이 合하여 이루어진 陰陽의 分化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人體의 經絡에 三陰三陽을 配屬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體質의 分類에 있어서 三陰三陽을 쓰지 않고 四象을 쓰는 것은 무엇인가? 즉 體質은 五行의 自我完成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單純히 天과 地의 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5. 陰陽과 開闔樞

앞의 太衝과 廣明에 관한 설명에서 太衝은 陰으로 모이는 꼭지점과 같은 것이라 하였고, 廣明은 陽으로 벌어지는 잎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陰은 氣를 가두는 일을 하고, 陽은 氣를 펴는 일을 하므로, 陰과 陽 사이에는 開闔의 關係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陰은 陰대로 開闔이 있고, 陽은 陽대로 開闔이 있게 되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陰을 闔으로 보고 陽을 開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그냥 하나로 보았을 때의 일이다. 즉 사람을 內外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보면, 陰에서 氣를 가두고 陽에서 氣를 별리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좀 더 면밀히 觀察하여 보면 內外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낮에 活動할 때는 意識이 있어 사람이 살아 있다는 認識을 할 수 있고, 밤에 잘 때는 意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呼吸을 하고 脈搏이 뛰는 것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마치 여름에 茂盛하게 잎이 피고 꽃이 피어있는 나무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낙엽속에 묻혀 있어 生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조그만 씨앗도 역시 살아 숨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사람에게도 內外의 區分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람에게서는 몸안에 식물의 씨앗과 같은 것과, 씨앗속에 들어있는 氣와 같은 것이 있다. 밤이 되면 이 氣가 속으로 들어가 意識이 消滅되었다가, 날이 밝으면 돌아와 意識이 恢復되니, 이는 바로 內와 外가 어느 정도 差別性을 가지고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內와 外가 이렇게 差別性을 가지고 存在한다면, 內는 內대로 開闔運動을 할 수 있으며, 外는 外대로 開闔運動을 할 수 있다. 물론 內外가 서로 完全히 區分되어진 것이 아니고, 緊密한 協助下에 도움을 주고 받겠지만, 각기 나름대로의 開闔을 把握할 수 있다.

1) 三陽經의 開闔樞 運動

太陽이 開라고 하는 것은 바로 太陽에서 氣가 消耗된다는 뜻이다. 一段 太陽에서 氣가 消耗되면, 太陽에서 氣를 吸收하는 것이 아니고, 少陽의 調節로 陽明이 그 吸收를 擔當하게 된다. 그래서 陽明이 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開闔樞는 非可易의 일이라서 逆回轉은 不可하다. 즉 반드시 陽明에서 吸收하여 太陽에서 消耗되어야 하며, 거꾸로 太陽에서 吸收하여 陽明에서 消耗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陽明은 水穀을 흡수하여 많은 氣를 쌓을 수 밖에 없으며, 이 吸收된 氣를 太陽이 消耗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물의 잎을 보라. 실물의 잎은 太陽을 바라보는 쪽은 울타리 組織으로 햇빛의 에너지를 吸收하고, 뒷면은 갯속 組織으로 空氣呼吸을 擔當하고 있다. 바로 이 울타리 組織이 우리 人體의 陽明과 같고, 갯속 組織이 太陽과 같다. 즉 울타리 組織에서 吸收된 太陽빛이, 뿌리의 물과 공기중의 炭酸가스를 結合하여 녹말을 만들어 놓으면, 밤에 뒷면의 갯속 組織이 炭酸가스 代身에 酸素를 吸收하여 낮에 만들어 놓은 녹말을 처리하듯이, 우리 人體도 陽明이 열심히 水穀을 吸收하여 놓으면, 太陽이 이를 처리하는 일을 擔當한다. 그러므로 發汗으로 體溫을 調節하거나 運動熱量을 調節하는 등의 陰陽調節을 太陽經과 督脈經이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少陽을 무슨 일을 擔當하고 있는가? 《內經·素問》의 <靈蘭秘傳論>에서는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⁵⁾이라 하고, 《六節藏象論》에서는 “凡十一藏 取決于膽”⁶⁾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膽이 어떤 決定權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決定權은 調節을 意味하고 仲裁를 의미하는 것이다. 肝은 五行中 木에 屬하여, 五行의 머리에 있는 行으로 謀慮가 出한다 하였는데, 이는 곧 앞으로 할 일을 計劃한다는 意味이다. 이러한 計劃이 膽으로 傳達되면, 膽은 그 情報를 가지고 六腑의 機能을 調節하므로써 全身의 陰陽의 均衡이 잡혀지는 것이다.

이러한 膽의 役活이 바로 少陽의 樞의 役活과 相通하는 內容이다.

2) 三陰經의 開闔樞 運動

三陽經이 水穀의 吸收에 關係하는 것이라면, 三陰經은 이미 吸收하여 氣血이 된 것을 어떻게 貯藏하고 消費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한다. 즉 太陰이 開가 되는 까닭은, 이미 氣血로 변한 穀氣를 어떻게 消耗시키느냐를 擔當하는 것이 바로 足太陰脾와 手太陰肺이기 때문이다. 즉 脾는 胃를 爲하여 그 津液을 行하는 것이 그 主된 機能이므로 開에 該當하는 것이 當然한 것이고, 肺도 또한 大氣를 吸入하여 氣血의 消耗를 促進하기 때문에 역시 開에 該當한다.

그리고 厥陰이 闔이 된다는 것은 足厥陰肝을 가리킨 것인데, 바로 肝의 藏血機能을 말한 것이다. 肝에 藏하였던 血이 足少陰의 推動을 받아야 全身으로 分布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少陰이 樞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氣血을 가지고 開闔樞를 論하였으므로, 厥陰이 闔이 되고 少陰이 樞가 된다는 것이다. 萬若에 氣血을 말하지 않고, 精氣를 말한다면 當然히 少陰이 闔이되고 厥陰이 樞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氣血만을 가지고 더불어 經絡의 生理만을 論한다면, 厥陰이 闔이 되어야 한다. 《素問今釋》의 方約中이 厥陰이 樞가 되어야 한다고 한 理論은 經絡의 分布와 《傷寒論》의 傳變次序를 가지고 論하고 있으나, 이에 反證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三陰交를 지나서 보면 分明히 方의 말처럼 厥陰이 太陰과 少陰의 사이를 循行하고 있다. 그러나 三陰이 交하기 전에는 少陰經은 足心으로 흐르고 太陰經은 足大趾의 內側 곧 開의 位置로 흐르며, 厥陰이 完全하지는 못하지만 足大趾의 外側 곧 闔의 位置로 흐르고 있다. 少陰이 足心으로 흐르는 것은 바로 腎이 先天의 本임과 同時에 바로 衛氣가 藏과 經絡으로 出入하는 通路이기 때문이다. 즉 腎에서 足少陰으로 衛氣가 出하여야 厥陰의 血도 全身으로 出할 수 있기 때문이다.

《傷寒論》에서 厥陰을 樞라 한 것은 傷寒이 비록 經絡의 病이라고 하지만, 실상 三陰病이 되면 經絡보다는 장이 問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三陽에서는 經絡을 重視하여 太陽 陽明 少陽의 經絡次序를 擇하였지만, 三陰病에서는 太陰 少陰 厥陰의 五臟精氣의 開闔樞의 次序를 擇하였다.

實際 《內經》을 研究함에 있어, 어떤 固定된 形式에 맞추려하기 보다는 왜 이 篇에서는 이러한 形式을 擇하였나를 밝히는 것이 重要하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內經》의 眞意를 알기 어렵다.

6. 考察

“前曰廣明 後曰太衝”에서 보면 人身의 前面은 陽이고, 後面은 陰이다. 그러나 陰陽經의 流注하는 것을 보면 陽經이 주로 身體의 背面을 흐르고, 陰經이 腹面을 흐른다. 이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것이 陰陽이 互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陰陽離合論」은 바로 이 前은 廣明이고 後가 太衝이라는 것과 또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34.

6) 上揭書, p. 37.

陽經이 背面을 흐르고 陰經이 腹面을 흐르는 등의 陰陽이 區分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陰經이 腹面을 흐르면서 後 즉 太衝에서 發源하고, 陽經이 背面을 흐르면서 廣明 즉 前面에서 發源하고 있는 것은, 陰陽이 서로 分離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7. 結論

「陰陽離合論」은 곧 人身의 陰陽이 서로 分離되면서 相合한다는 뜻인데, 太衝은 氣血이 陰으로 合하는 것을 表하는 것이며, 廣明은 陽으로 別어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아가 三陰三陽의 經絡도 크게는 같은 뜻이나, 陰陽이 互根하므로 太衝에서 發源한 陰經은 腹部로 흐르고, 廣明에서 發源한 陽經은 背部로 흐른다. 그리고 數의 原理에 있어서 四象에서 三陰三陽이 될 수 있고, 또 군이 三陰三陽이 經絡이 되는 것은 바로 五行이 있기 때문이다. 즉 四象은 客觀的 世界이다. 이것이 主觀 즉 自我인 내가 나를 中心으로 觀察한 五行의 世界를 거쳐야, 비로소 客觀과 主觀이 結合한 三陰三陽의 世界가 出現한다. 經絡이란 바로 自我와 外界를 連結하는 通路가 되므로, 이러한 理由가 바로 三陰三陽이 經絡에 合하게 될 수 없는 까닭이다.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3. 金赫濟 校閱, 原本備旨 中庸, 明文堂, 1976.
4. 申泰三, 古文眞寶, 世昌書館, 1981.